



가톨릭 안동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통합 생태적 교회를 향하여

제302호 2024년 10월 13일(나해) 연중 제28주일(군인 주일)



© Wikitionary®.
Creative Commons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창세 1,31)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 남방동사리(*Odontobutis obscura*)

제1독서 지혜서 7,7-11

화답송 ◎ 주님,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가 기뻐하리이다.

손상오 신부 곡



제2독서 히브리서 4,12-13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알렐루야.

복음 마르코 10,17-30

영성체송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라.

하느님 나라로의 초대 “아이 콘택트”



군종 교구
백동수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찬미 예수님. 일 년 만에 군인주일에 교구민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7월 5일부로 대구 50사단 강철성당에서 육군 항공사령부 비승성당(이천)으로 부임했습니다. 초임 때는 최전방에 있다가, 그다음에는 대구로, 이제는 가운데 지방인 이천으로 왔습니다. 최전방 경계부대, 지역방위사단, 육군 직할부대를 골고루 경험한 셈입니다. 군종신부는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 만에 임지를 옮기기에 이사가 매번 쉽지는 않지만, 새로운 임지에서 저에게 맡겨진 부대원,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복무하는 육군 항공사령부는 헬기 부대입니다. 지난 국군의 날에 서울 상공에서 화려하게 기동 시범을 보이는 아파치 헬기를 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 헬기를 관리하고 운용하는 부대입니다. 날마다 헬기가 뜨고 내리기 때문에 부대는 안전을 최우선시합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 주 화요일 새벽 6시 30분에는 종파별로 부대 안전 기도회가 있습니다. 헬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나, 정비하는 정비사가 주어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한다고 하여도 예기치 않은 상황이 늘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 군인 가족들은 안전을 위하여 기도에 의지합니다.

비승성당에 부임하고 나서 한 시간 동안 성전에 앉아서 성체조배를 했습니다. ‘주님, 이 부대에서 저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입니까?’하고 물었습니다. 기도 안에서 다가온 울림은 부대원의 안전을 위하여 매일 미사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제로서 당연한 직무이지만 지난 3년의 생활을 생각해 보니 부대 업무와 성당 및 공소의 시설 공사와 보수 때문에 기도를 제때 드리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블로그에서 20여 년간 군종신부로

재직하시다가 전역하시고 교구의 한 본당에서 사목하시는 신부님의 글을 보았습니다. 매일 사목일기를 쓰시며 빠지지 않고 그날 있었던 일과 그날 복음묵상 기도를 남기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주일 복음 묵상, 성화 해설, 성당 시설관리 등 신부님은 어느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중심을 두고 사제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 듯 했습니다. 사제로서 가장 기본적인 직무수행을 성실히 하시면서 당신의 달란트를 펼치시는 모습에 큰 감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마르 10,17) 예수님께서서는 이미 알고 있는 계명을 충실히 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사람은 그런 계명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하시며 “사랑스럽게”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권고는 그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는 것이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전까지 자기 삶에 자신 있었던 그는 예수님의 초대 이후 울상이 되어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느님 나라로의 초대였지만 이 사람은 끝내 하느님 나라로의 초대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미 가진 것에 얽매어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아시고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하느님 나라로 계속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와 성찰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주님에게서 떠나려는 유혹도 끊임없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아이 콘택트(눈맞춤)’ 하시려는 그분의 초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켜주세요 <남방동사리>

표지 사진 설명



거제도 산양천에서만 서식하는 남방동사리는 우리나라 고유종입니다. 하천의 중·하류나 모래, 진흙이 깔린 곳에 주로 서식하며 곤충, 유충, 갑각류와 어류를 먹습니다. 몸길이는 약 10~15cm이며 몸 앞부분은 원통형이고 뒷부분은 옆으로 납작합니다. 몸은 진한 갈색이며 배는 노란색을 띠니다. 모든 지느러미에 줄무늬가 있고 매우 제한적인 서식 범위를 가집니다.

우리 지역에는 남방동사리와 비슷한 ‘꾸구리’가 있었습니다. 물이 맑은 하천의 자갈이 많이 깔린 여울에 서식하던 ‘꾸구리’가 언제부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니 세제류 등 각종 유해화학물질로 하천이 오염되던 1970년대 후반쯤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하천이 정비되고 물길이 바뀌고, 물은 정화되었으나 ‘꾸구리’는 추억 속의 물고기가 되었습니다. 남방동사리는 산양천에서 오랫동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성본당- 정규석 프란치스코

※ 2024년 「가톨릭안동」 1면에는 <찬미반오소서 7년 여정: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의 일환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동물’에 대해 다룹니다. <국립생태원>에서 제공해 준 사진과 자료를 참고하여 목상글을 담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일편단심 -문경관아에서 상주옥터까지-

정상동 본당 송규흠 아오스딩

1866년 11월 18일(음 10월 12일).

그 무렵 전국 각지에서 피신해 와, 여우목 교우촌을 비롯하여 문경 산골에 숨어 살던 천주교인들이 문경 관아로 잡혀 온다. 그곳에서 참아낼 수 없는 문초를 겪으면서도 배교하지 않는 수십 명의 사람들은 다시 상주로 이송되었다. 그들은 단지 하느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오라를 지고 포승줄에 묶인 채 만신창이가 된 몸을 끌고 200리 길을 걸어 상주 감옥으로 끌려가 처형당한다.

문경성지를 담당하는 정도영 신부님께서는 당시 남아 있는 자료의 고증을 통하여 순교자들의 당시 행적을 되짚어 볼 수 있는 도보 순례길을 만들었다. 여우목 교우들이 잡혀왔던 18Km를 걷는 '순교의 길', 갈래 신부님과 박상근 마티아의 신앙 고백을 간직한 백화산 정상까지 산길 12Km를 왕복하는 '우정의 길', 문경으로 잡혀와 상주로 이송되었던 순교자들을 기리면서 80Km를 3일간 걷는 '믿음의 길'이다.

추석을 코앞에 둔 지난 9월 13일, 불과 100여 년 전이었던 그때를 생각하며 전국 각처에서 온 10명의 교우들과 함께 신부님을 따라 문경 관아에서부터 상주옥터 까지 80Km를 걸었다.



서울로 가는 1번 도로였던 조령천 천방을 따라 난 길, 저만치 앞에서 포승줄에 묶인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걸어간다. 강물이 그들과 함께 흐르고, 뭉게구름이 함께 그들을 따른다.

지금 나는 그저 더울 뿐이다. 아무리 흠쳐내어도 흐르는 땀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까지 따갑다. 35도를 넘는 늦더위를 온몸으로 느끼며, 내딛는 한 발짝이 무겁지만 그래도 우리 일행은 챙이 넓은 모자로 햇빛을 가리고 그늘에 앉아 물을 마신다.

외어 공소를 지나고 신현공소를 지나고 고모산성을 넘어 다시 영강을 따라 점촌으로 접어든다. 첫날 여정이 끝나는 곳이 신기 성당이다. 미사 중에 신부님께서 상주 감옥으로 잡혀가던 교우들은 비록 그 길이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었지만 서로의 믿음과 하느님을 향한 사랑으로 결코 외롭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들은 웃으면서 함께 이 길을 걸을 수 있었다고, 그래서 이 길을 '믿음의 길'이라고 명명했다고 하신다.

점촌성당을 지나고 모전성당도 지나고, 함창성당을 뒤로하고 낙동강 둑길로 접어드는데 강둑을 따라 길가에 백백한 한삼덩굴은 이미 베어낸 덩굴 위를 또다시 기어 오르고, 잘린 갈대 속에는 또 새 잎이 돌아 나온다.

잠시 퇴약벌에 서서 강물을 본다. 어찌면 그들은 아무리 베어내도 다시 한삼덩굴로, 때로는 잘린 갈대의 속잎으로 우리 곁에서 영원히 살고 있는지 모른다. 전화번호와 그 밖의 성지 관련번호를 0145(영원사오)로 만들어 놓은 신부님의 마음을 잠시 읽을 수 있었다.

퇴강 성당에서 또 하루를 함께 머물고 마지막 상주 시내가 가까워질 무렵 어느덧 해는 서쪽 끝이다. 마지막 옥터에 다다르자 사흘 내내 따라오던 구름이 기어이 붉게 물들어 타고 있었다. 오롯이 하느님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죽음의 길을 택한 그들도 온 마음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어둠이 내린다. 짧은 사흘간의 도보 순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구름이 흩어지듯 사라졌다.



<상주 한마음유치원>에서 탄소발자국 줄이기 “지구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 1) 버려지는 자투리 종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의하던 푸른반 친구들과 ‘재생종이 만들기’ 놀이를 했습니다.
- 2) 친구들이 사용 후 남은 자투리 종이들을 모아 잘게 찢어 물에 불린 후 녹차가루, 자초, 치자, 커피가루 등으로 염색하고 말려 알록달록 여러 모양의 새로운 재생 종이로 재탄생시켜 보았답니다.
- 3) 친구들의 작품을 전시하며 많은 사람에게 ‘재생종이’의 아름다움도 알릴 수 있었습니다.



※ '탄소발자국 줄이기 함께 지켜요.'에서는 탄소발자국 줄이는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2024년에는 매주 <안동교구 소속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태 환경 교육 이야기를 전합니다."

안동지구 브레시디움 단장교육

배호심 베로니카 안동 Re. 명예기자

안동교구 사도들의 모후 레지아는 9월 5일 김종섭 갈리스토 신부를 담당사제로 맞이하였습니다. 9월 28일 목성동 주교좌 성당에서 안동 순교자들의 모후 Co. 산하 각 브레시디움 단장 61명을 대상으로 4차 단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명우 레지아 단장은 “레지오 마리아는 기도와 활동, 공부를 통해 거룩한 습관들이기에 가장 좋은 신심단체이며, 단원들이 레지오의 규율을 잘 지키고 참다운 사도정신을 지닌 단원으로 성장하는데 Pr. 단장의 역할이 중요함”을 역설하였습니다. 배부된 단장교육 교재의 주요내용을 문항으로 풀이하여 실제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Pr. 단장교육은 지구별로 계속될 계획입니다.



전례 봉사자 교육(독서, 해설자)

지난 9월 28일(토) 안동교구청 강당에서는 각 본당과 공소에서 전례에 봉사하는 전례부장과 차장을 위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날 교육에서는 교구 전례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재형 베드로 신부님의 전례 일반에 대한 교육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전례봉사자로 불러주신 하느님 안에서의 삶을 묵상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하반기 중·고등부 회장단 모임

중고등부 회장단 친구들이 9월 29일(주일)에 교구청과 안동 일대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주님 안에서 친교와 힐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성연합회 · 평협 사목방문

10월 3일(목)에 교구청에서 <여성연합회 · 평협 사목방문>이 있었습니다.



안동신협

가톨릭과 함께하는 서민은행
정기예금 3.4% (1년)
안동시 태사2길 28(안동의료원앞)
T.054-859-1710

영주 독일 보청기

노인성 난청 전문
김 성 문 (스테파노)
영주시 구성로 333
(신호동 오거리 성누가병원 옆)
T.054-635-2498, 010-3693-7684

서울 프라임 치과

임플란트·교정·보철치료·치주질환
원장 김재권 미카엘
안동시 옥동사거리
T.054-859-2879

서민 식육 식당

등심, 갈비, 차돌박이, 양지, 불고기, 삼겹살, 목살
점심특선: 주물럭, 불고기, 육회 비빔밥, 곰탕
전국 택배 가능
이택규 (마티아)
예천군 호명면 양지3길 21 (호명초 앞)
T.051-655-4994, 010-9494-4074

문경새재 임걱정가든

40년 전통 손두부전문 농이버섯 한우두부전문
홍창식 안젤로 박순분 안젤라
문경읍 새재로 870번지
T.054-571-2285, 054-572-0027

안동 우리농

www.andongfood.net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며 모두를 살리는
생명농산물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T.054-843-0128

(주)이우텍

디지털문화 콘텐츠 전문기업
홈페이지, 쇼핑몰 구축·유지보수
홈페이지: www.iwootec.com
T.054-843-5700

천주교안동교구사회복지회 다미안 의원

피부질환, 레이저콜리닉, 보톡스
(수익금은 사회복지를 위해 사용합니다.)
영주시 봉화로 2(상망동)
T.054-633-6762



성진사우나

대표 김용숙 스텔라
송우근 바오로
문경시 중앙로 212
T.054-553-0059

아름다운얼굴피부과의원

피부질환, 피부미용, 보톡스, 필러,
레이저, 여드름, 아토피, 탈모, 비만,
검버섯, 점, 제모
피부과 전문의 의학박사 김중원 요셉
T. 054-553-2079

대게 좋은날

대게, 회 식당 및 숙박운영
대게, 킹크랩, 랍스타, 짬&코스 요리, 회, 물회
다양한 메뉴, 맛있고 입이 즐거운 여행! 숙박까지
이복도 요셉, 김경숙 마리아
010-2520-1926
영덕군 강구면 강구대게길 37
T.054-732-8357

주보 광고모집

1. 주보광고 모집 안내

[교구 내] 1회 3만원,
[타 교구] 1회 5만원

2. 단체 알림 광고 모집 안내

[교구 내] 4줄 무료(제목 포함)
[타 교구] 1줄당 5천원(제목 포함)

문의: 사목국

054-858-3114-5
sa3119@nate.com

엘리마리

빙수 전문점
(콩고물, 카스테라, 망고, 초코, 딸기빙수)
김유경 엘리사벳 010-2831-8273
매봉 4길 14 (대동타운 아파트 앞)

가인 재가 복지 센터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노인주간보호
손순이 세라피나
상주시 무양 1길 46
T.054-535-8090

+ 교구 봉안 경당(납골당)

경북 예천군 지보면 지풍로 983-41
분양 및 예약, 묘지 이장 소개
위령미사- 매주 토요일 15시
T.054-655-1781, F.054-655-1782





교구장 동정



10월 14일 추계 주교회의(~18)

축하합니다

영명축일

- 10월 14일 김종섭 갈리스토 신부
- 10월 17일 김재문 이냐시오 신부
- 10월 19일 두 봉 레나도 주교

교 구

사목국 공소탐방

일 시: 10. 20(주일) 08:00
장 소: 함창 신흥공소

예비신학생 10월 모임

일 자: 10. 26(토)
장 소: 농은수련원
교구<찬미받으소서>행사와함께합니다.

2024년 청년연합회 성지순례

일 시: 10. 27(주일) 8:00~18:00
장 소: 원주교구 배론성지
준비물: 미사준비, 돗자리
참가비: 10,000원/ 1명
교구 내 청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취패 도미네와 함께하는 성시간

일 시: 11. 8(금) 20:00/ 12. 6(금) 20:00
장 소: 예천 본당
대 상: 함께 하실 분은 누구나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아름다운 자연과삶>이라는 주제로 사진과 글을 공모합니다.

작품 내용 및 구성:
사진에 담긴 의미,
자신의 삶과 신앙에 대해
소개하는 간단한 글
(혹은 사진과 잘 어울리는 성경 구절)
메일- sa3119@nate.com



▶오픈카톡

안동MBC 창사특집 다큐멘터리

"한국인 두봉 주교"
10월 17일(목) 저녁 9시

안동교구 가톨릭농민회 사원모집

대 상: 배송직, 집품직
구비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
서류 접수 및 문의: T. 854-1847, F. 853-0127

수 도 회 · 피 정

시니어를 위한 색칠하기

제 목: 성경 속 식물 컬러링 북 색칠하기
일 시: 10. 8(화)~ 10. 29(화)
(매주 화요일 16:00~ 17:30)

대 상: 65세 이상
장 소: 안동 바오로딸 서원
회 비: 3만원 (책은 본인이 구입)
문 의: 010-2894-7020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성소모임

일 시: 10. 19(토) 14:00
장 소: 개화동 수도원(서울)
문 의: 010-3800-1579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고전 읽기

제 목: 영혼의 성(예수의 성녀 데레사 지음)
연 제: 10. 26(토)~ 11. 23(토)
(매주 토요일 16:00~ 17:30)

장 소: 안동 바오로딸 서원
회 비: 1만원 (책은 본인이 구입)
문 의: 010-2894-7020

살레시오회 성소모임

대 상: 중1~ 35세 이하 미혼 남성
문 의: 010-6221-3520

금요철야 기도

일 시: 매월 금요일 20:00~ 01:00
금요일 18:00~ 토요일 15:00 파견미사
강 사: 김완식 요셉, 한연흥 심부님
진 행: 고영민 안드레아(찬양팀)
문 의: 043-213-9103, 010-5482-6744

교 육

산자연중학교(대안교육) 학교설명회

일 시: 11. 2(토) 14:00 (2차)
대 상: 현재 초6, 중1
전,입학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전문교육기관 충주성모학교

과 정: 유/초/중/고/전공과(5개 과정)
대 상: 시각장애 및 시력 사용이 불편한 사람(연령 무관)
지 원: 무상교육, 기숙시설, 통학,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등
특 전: 35종 장학금, 안마사자격증 취득, 일자리사업 참여 등
문 의: 043-852-1374, 843-1374

가톨릭상지대학교

가톨릭상지대학교 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1차 모집: 11. 8(금)~ 11. 22(금)

7개 학부, 15개 모집학과
주말반 학과 모집: 사회복지과, 전기과
전산세무회계과,
드론운용정비과
야간 학과 모집: 경영과, 사회복지과,
외식창업조리과,
하이브리드자동차과,
노인건강지도과
입학 문의: 851-3021 <https://www.csj.ac.kr>

식품가공연구개발(밀키트) 무료 교육

일 정: 11. 3(일), 10(일) (총 2일 10시간)
시 간: 09:00~ 14:30
내 용: 식품 개발 개요 및 사례,
HMR-밀키트 실습 및 포장
대 상: 고용보험 가입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문 의: 가톨릭상지대학교 공동훈련센터
054-851-3137

노인상담기법 무료 교육

일 정: 11. 23(토), 12. 7(토) (총 2일 12시간)
시 간: 09:00~ 17:30, 09:00~ 13:00
내 용: 노인심리지원, 상담기법 스킬 향상 등
대 상: 고용보험 가입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문 의: 가톨릭상지대학교 공동훈련센터
054-851-3137

"만원의 행복"(농은수련원 위령성월 피정)

일 시: 11. 2(토) 10:00~ 16:00
주 제: 이제는 제 눈이 당신을 보았습니다.
(옴 42,5)
대 상: 누구나
참가비: 1만원
신 청: 10. 20(주일)까지 054-652-0591

사제와 함께 하는 문경 도보 순례(숙식제공)

2박 3일 코스: 10. 18(금)~ 20(주일)
(참가비 3만원)
1일코스: 10. 5(토), 10. 26(토),
11. 16(토), 11. 23(토)
(참가비 1만원)
신 청: 010-9944-0145
(daum 카페: 문경 천주교 성지 참조)